



매주 태호의 방산 Weekly

2026.07.20

강태호 방산 / kth@ds-sec.co.kr

이란 전쟁 딜레마: '승리 없는 전쟁'의 장기화

■ 휴전 MOU 효력 상실, 이란-미국 모두 공격 수위 격상

-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휴전 MOU를 3주 만에 사실상 파기하고 상호 고강도 공습 국면에 재진입
- 이란은 미 5함대 사령부(바레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쿠웨이트) 등 미군 핵심 자산 밀집국 중심으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7월 17일에는 요르단에서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미군 2명 사망·1명 실종 발생
- 미국은 이란에 8일 연속 폭격을 가하며 타격 범위를 미사일·드론 발사시설에서 교량 등 기반시설로 확대
- MOU 붕괴 원인은 1) 합의문 자체의 모호성(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양측 이견,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의 2단계 이연), 2)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다툼 지속, 3) 미국의 이란 원유 판매 허가 철회 및 동결자산 이전 지연
- 이란은 '미국의 선 위반으로 MOU가 효력을 잃었다'며 공격 지속 방침/ 미국은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발사 시설을 넘어 혁명수비대(IRGC) 지휘부·자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전망

■ 양국 모두 딜레마 속 미사일 교전 중심의 소모전 지속 전망

- 요르단 주둔 미군 전사로 미국의 확전 고려 가능성은 커졌으나 1) 직간접 전쟁비용이 이미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2) 미국인 약 70%가 종전을 지지하는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미국 입장에서 추가 확전은 부담
- 확실한 승리에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나 침공 작전 자체는 물론 그 이후가 더 문제. 이라크 침공 초기 미군 전사자는 139명이었지만 이후 8년 점령전에서 4,400명 이상 추가 전사
- 이란은 이라크 대비 국토 4배·인구 3배(약 9천만 명)이며, 자그로스·알보르즈 산맥과 폭 30km 미만의 좁은 해안 교두보를 고려하면 전면 침공은 이라크전보다 훨씬 어려운 전쟁(소요 병력 50만~160만 명 추산)
- 결국 전쟁의 결정적 종결에는 지상군 침공이 필요하지만 침공은 정치적·군사적으로 미국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직면
- 지상군 투입은 미군 대규모 인명피해(수십 명 이상), 항공모함 피격, 전쟁목표의 '정권교체' 격상 등 임계 이벤트 발생 시 호르무즈 인근 도서 점령형 제한 작전에 국한될 전망이며 이외에는 확률이 낮다는 판단
- 이란 역시 호르무즈 주도권 유지를 위해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나 원유 판매 제한과 자산 동결에 따른 경제적 압박으로 현 전투 수준의 장기 지속은 역부족
- 결국 양국 모두 '승리'의 정의가 모호한 채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상태로 미사일 위주의 공습·교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란의 공격이 쿠웨이트 담수화 시설 등 민간 핵심 인프라로 확대되는 가운데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 소진으로 피격국들의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하락 중 → 요격탄 소진이 만드는 대체 방공 수요로 천궁-II·L-SAM 도입 논의에 우호적 환경 지속 조성
- Top Picks: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표1 7월 미국-이란 분쟁 주요 사건 요약

날짜	주요 사건
7/7	호르무즈 상선 공격 → 미국 80여 개 목표 공습 미국 제재 완화 철회
7/8~9	추가 공습 보복 위협
7/10~11	오만 중재 협상, 호르무즈 개방 갈등
7/12	미국 추가 공습,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 및 호르무즈 폐쇄 선언
7/13	미국, 이란 연안 항만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 선언 트럼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보장하겠다고 통항 화물에 20% 비용 부과 구상 발표
7/13~14	미국, 이란 남부 호르무즈 인근 군사시설에 3일 연속 대규모 공습 이란, 미군 기지 및 걸프 해상 목표물에 미사일·드론 공격 지속
7/14	호르무즈 통항량 2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감소, 국제유가 급등
7/15	미국, 반다르아바스·대툰브섬 등 이란 연안 방어망과 미사일 시설 공습 이란, 바레인·쿠웨이트·요르단 미군기지 보복 공격
7/16	미국, 이란 남부 군사시설에 추가 대규모 공습 이란, 쿠웨이트·요르단 등 걸프 미군시설 공격 지속
7/17	미국, 공습 범위를 교량 항만 터널 등 군사 물류 인프라로 확대 이란, 쿠웨이트 발전·담수화 시설 공격. 호르무즈·홍해 해운 위협 확대
7/18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2명 사망·1명 실종 미국, 트럼프 승인 아래 즉각 보복 공습 확대 이란, 미국의 MOU 위반을 주장하며 합의 이행 공식 중단
7/19	미국, 핵연구비대·미사일·지휘통제 시설 추가 타격. 대이란 공습 8일 연속 지속 이란, 쿠웨이트 등 걸프 미군기지 재공격. 군사시설에서 핵심 인프라로 공격 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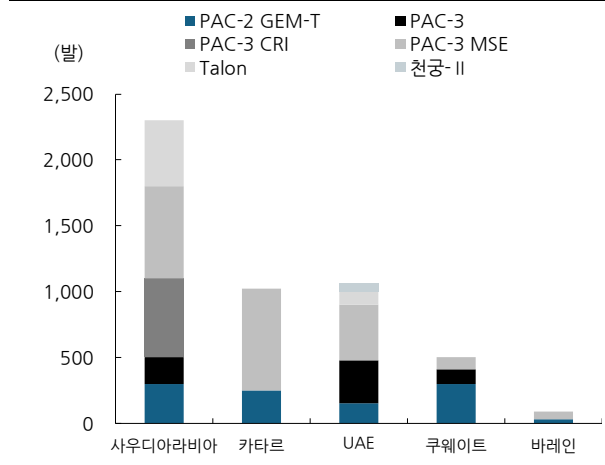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종합,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이라크와 이란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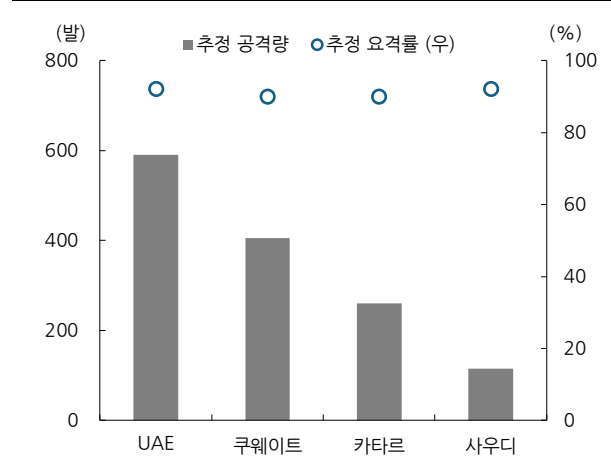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중동 주요 국가의 전쟁 전 요격 미사일 재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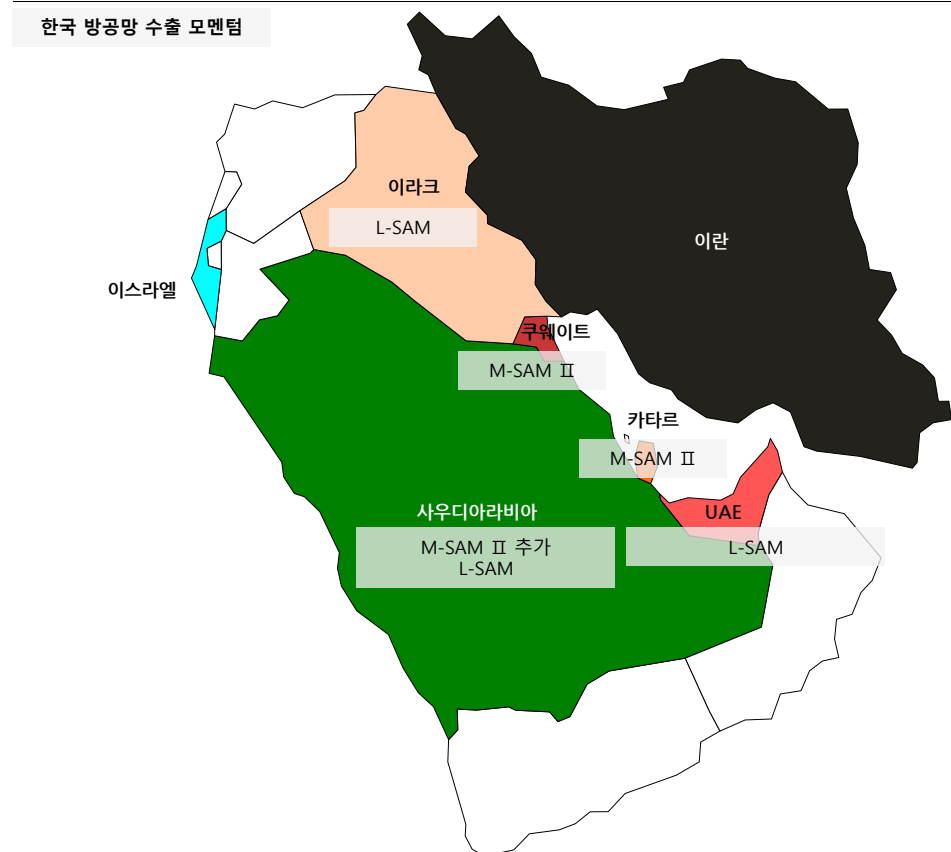
자료: 파비안 호프만, WSJ,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이란으로부터 공격받은 탄도미사일 수 추정



자료: 각 국 국방부, 언론 보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4 중동국가의 한국 방공망 수출 모멘텀 정리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 한국 방위산업 주요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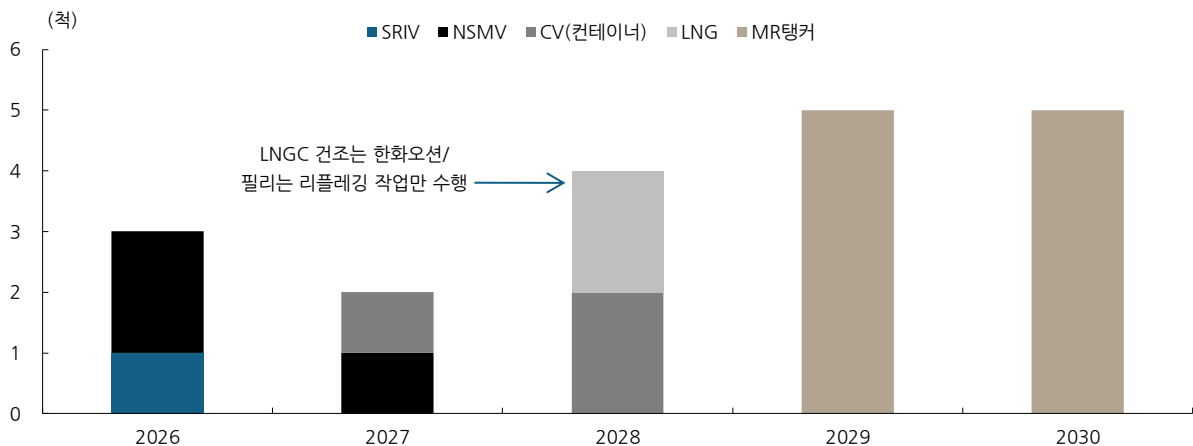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한화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 신형 '골든 디펜더' 미사일 감시함 건조 예정

- 한화필리조선소는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미사일 계측함(MRIV, Missile Range Instrumentation Vessels) 건조 사업을 수주
- 한화그룹은 18일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선박 관리 기업인 TOTE Services와 함께 MRIV 건조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힘
- 이번에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프로젝트인 '골든 돔(Golden Dome)'의 일환
- 기존 국립해양사관학교에서 훈련함으로 사용하던 다목적 훈련함(NSMV) 디자인 기반으로 제작 예정
- 명명식에 참석한 러스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은 이번 사업 투자 규모를 20억달러(약 3조원)라고 밝힘
-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NSMV 함정 외에도 상선도 건조
- 한편, 한화는 최근 몇 달 동안 미 해군과의 계약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를 밝힘
- 예를 들어, 한화디펜스USA 사장 마이클 쿨터는 지난 4월 상륙함(LSM)과 같은 함정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중이라고 언급
- 쿨터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연간 생산 능력을 10~20척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
- 이는 올해 조선소에서 건조를 완료할 예정인 3척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쿨터는 밝힘
- NSMV는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2024년 말) 이전부터 건조해 온 선종으로, 설계 변경과 납기 지연이 누적되며 적자가 발생해 온 프로그램
- 현재 5척 중 4척 진수(4호선 Lone Star State 명명식 완료, 5호선 2027년 중반 인도 예정)로 시리즈 중반부에 진입
- 금번 수주한 MRIV(2척, 약 20억 달러, 1호선 Golden Defender 2030년 인도)는 NSMV 선형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설계로 1) 추가 설계·개발비 부담이 제한적이고 2) 가동 중인 생산라인과 숙련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며, 3) 후속함 특유의 학습효과가 반영되는 만큼 NSMV 대비 개선된 채산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URL: <https://bit.ly/4b4DhNM>

그림5 필리조선소 수주 현황 및 인도 일정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현대로템 K2 전차, 국내 최초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획득

- 현대로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품질보증시스템 'AQAP-2110'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힘
- 국내에서 AQAP-2110을 획득한 기업은 현대로템이 처음
-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최근 국제 협력을 통해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공식 인증기관이 됐는데, 이번에 현대로템을 상대로 처음 자격을 행사한 것이기도 함
- AQAP-2110은 나토 회원국 내 방산물자 획득에 쓰이는 품질보증 규격으로, 한국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과 유사
- 설계, 개발, 제조 등 단계별로 나토 품질 요구사항이 명시돼 있으며 나토 국가 및 파트너국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힘
- 이번 인증 대상 품목은 현대로템의 전차 라인업
- K2 전차를 비롯해 구난·교량·장애물개척전차 등 각종 계열전차의 설계, 개발, 제조에 대해 AQAP-2110을 획득
- 이번 인증 획득으로 현대로템 K2 전차는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권역 내 방산물자 입찰 자격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됨
- 국내 주요 방산 수출 품목인 K2 전차의 이번 인증 획득은 지난 8일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들이 국방비 증액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이뤄져 의미가 큼
- *내년 본격화될 루마니아 전차 사업(K2 216대, 약 10조원 규모)에서 품질보증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루마니아를 넘어 유럽 후속 수주 전반의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판단*

URL: <https://bit.ly/4ytIC>

표2 루마니아 주력 전차 현대화 프로젝트

구분	내용
대수	전차 216대, 지원차량 76대
사업비	65억 유로(11조원)
개요	TR-85-800, TR-85M1, T-55 계열 노후전차 교체
도입 후보	K2, 레오파르트2A8, KF51 판터

자료: 루마니아 주력 전차 현대화 프로젝트

KAI, 인도네시아에 T-50i 고등훈련기 6대 납품 완료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i 고등훈련기 6대를 최근 인도네시아 공군에 납품 완료했다고 16일 밝힘
- 2021년 7월 계약한 T-50i 추가 수출 사업은 올해 2월 납품을 시작해 6월 말 최종 호기를 인도
- T-50 최초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2011년 T-50i 16대를 계약해 고등훈련과 경공격, 특수비행 임무에 활용해 옴
- 인도네시아는 KT-1 20대, T-50 22대 등 총 42대의 국산 항공기를 도입
- 현재 추진 중인 IF-X 사업을 통해 KF-21 해외 최초 도입국이 될 것으로 기대

URL: <https://bit.ly/3TscyVb>

한국형 전투용 무인잠수정 어디까지 개발됐나

- 최근 한화시스템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무인 함정 운용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정박과 유지·보수·정비(MRO) 안전 사고 문제를 원천 차단할 혁신적인 인프라 기술을 고안한 ‘무인 잠수정 계류 시설 어셈블리(등록 번호 10-2945548)’ 특허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짐
- 해군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무인잠수정의 해상 정박으로 알려짐
- 둥글고 미끄러운 선체의 대부분이 물속에 잠긴 채 기동하기 때문에 일반 소형 선박용 부유 구조물인 ‘폰툰’을 임시방편으로 이어 붙여 계류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
- 이럴 경우 파도나 조류에 조금만 휩쓸려도 잠수정이 폰툰 하부의 텅 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 선체와 정밀 탐지 센서가 파손될 위험이 커지는데 이를 해결할 해상 정박 기지를 고안해 내면서 초대형 무인잠수정 전력화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URL: <https://bit.ly/4pztjdm>

“장거리 공대공도?” LIGD&A ‘KF-21 미사일 토탈 패키지’ 최초 공개

- LIGD&A가 KF-21의 핵심 무장을 통합 관리하고 수출까지 추진하는 ‘미사일 토탈 패키지’를 제안
- KGGB 유도폭탄부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SRAA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ALCM),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LRAAM)까지 LIGD&A가 체계융합을 맡아 수출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구상
- KF-21에 탑재되는 주요 무장을 LIG가 통합 관리할 경우 개발비와 양산비를 절감하고, 통합 유지·보수·정비(MRO) 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
- LIG는 KGGB(한국형 GPS 유도폭탄)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 개발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SRAAM-II) 체계개발에도 착수
- 유도탄 개발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계 가운데 하나는 미사일을 전투기에 실제로 장착하고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체계통합
-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서 축적한 체계통합 경험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자 선정과 KF-21 국산 무장 체계의 완성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

URL: <https://bit.ly/4wUFRlj>

· 글로벌 방위산업 주요 News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미 해군은 줌알트급 구축함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데 있어 2년이나 뒤쳐져 있음

- 미 해군이 줌알트급 구축함 3척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이 예정보다 2년 지연되고 있다고 정부 감사관들이 밝힘
- 구축함과 미사일 문제 외에도 해군과 육군은 합동 재래식 신속 타격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최근 CPS 미사일 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DDG-1000급 구축함에 CPS 미사일을 개발, 인도 및 배치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
- 줌알트급 구축함 2척이 이미 인도되었으며 세 번째 함정은 2028년에 인도될 예정
- 또한, CPS 미사일은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에 탑재될 예정이며 미 육군은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무기(Land-Range Hypersonic Weapon)를 사용
-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수직 발사관 설치와 같은 구축함 개조로 인해 비용이 추가되고 건조가 지연
- 예를 들어 한 함선은 "초기 프로젝트 설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케이블이 필요했는데, 이는 계약업체가 CPS 미사일 발사관 설치를 위해 함선 앞쪽에서 계획보다 더 많은 케이블을 절단하고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GAO는 지적
- CPS 미사일 제작은 일부 작업자들에게 너무 복잡한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함

URL: <https://bit.ly/4pqCtse>

러시아, 새로운 외국인 및 벨라루스산 부품을 이용한 미사일 생산 지속

- 러시아는 첨단 수입 전자 장비와 국내 및 벨라루스산 하드웨어를 결합하여 국내 미사일 생산 라인을 유지
- 26년 5월 24일 빌라 체르코바 인근 공격에 사용된 이스칸데르-M 변형 미사일과 오레스니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최근 분석 결과, 크렘린이 여전히 국제 무역 제한을 우회하여 최첨단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정책 담당관인 블라디슬라프 블라시우크는 조사 결과 이스칸데르-M 미사일 잔해에서 미국, 스위스, 일본, 중국, 벨라루스에서 제조된 부품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힘
- 반면 조사 대상이었던 오레스니크 미사일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부품만 포함
- 2026년 7월 2일 밤, 러시아는 대규모 공습을 통해 수백 대의 드론과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에는 약 35,000개의 외국인 부품이 탑재되어 있었으며, 주로 키이우를 목표로 삼았음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정책위원인 블라디슬라프 블라시우크는 압수된 부품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AMD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이중용도 및 민간용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중간 조달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되었다고 밝힘

URL: <https://bit.ly/4f8kRy2>

캐나다, 국내 생산 장갑 전투 지원 차량에 14억 달러 투자 예정

- 캐나다는 향후 4년간 전투 지원 차량 190대를 도입하는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장갑차 전력을 대폭 증강할 예정
- 약 20억 캐나다 달러(미화 14억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은 온타리오주 런던에 본사를 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캐나다 (GDLS-Canada)에 낙찰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7월 16일 이 계약을 발표하면서 캐나다가 GDLS-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장갑 전투 지원 차량 35대를 추가로 제작하는 비용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힘
- 캐나다는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이와 같은 차량 89대를 기증한 바 있음
- GDLS-캐나다는 2019년 8월에 최초 360대의 장갑 전투 지원 차량 계약을 수주했으며, 해당 차량들은 이미 납품
- 카니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캐나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국방 산업 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
- 그는 GDLS-캐나다와 같은 미국 소유 기업들이 캐나다에 경제적 투자를 약속하는 한, 그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둠

URL: <https://bit.ly/3Tc4GXR>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20~30분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CIA 국장이 밝힘

-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수요일, 우크라이나 전선에 도착한 러시아 신병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기까지 평균 20~30분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밝힘
- 이는 미국 정보 고위 관계자가 모스크바에 전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처음으로 확인한 것
- 유럽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수개월 동안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말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최고 사령관은 지난 5월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가 하루에 최소 1,000명의 병사를 잃고 있다고 밝힘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드론이 전선 전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2026년 상반기 러시아대 우크라이나 사상자 비율은 거의 8대 1에 달했는데, 이는 전쟁 기간 대부분 동안의 약 2대 1 또는 3대 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 CSIS 연구진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양측에서 200만 명이 넘는 병사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으며 그중 러시아가 14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사망자는 최대 45만 명에 달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주요 강대국이 겪은 가장 높은 전장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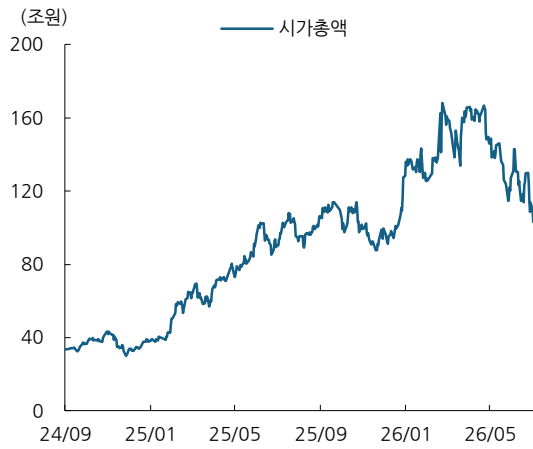
URL: <https://bit.ly/3R1tZeH>

콩스버그의 수주 잔고가 미사일, NASAMS 및 해저 보안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며 1,580억 노르웨이 크로네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 콩스버그는 2분기에 매출이 31%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
- 신규 수주로 인해 수주잔고는 사상 최고치인 1,580억 노르웨이 크로네에 달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6.1%
- 이번 분기 실적은 주요 방공 프로그램 덕분에 호조를 보였으며 드론 및 미사일 대응 프로그램 또한 매출 증가에 기여
- 콩스버그는 벨기에가 최근 NASAMS를 선정했으며 쿠웨이트 또한 레이시온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콩스버그는 수주 잔고가 핵심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고 밝혔으며 핵심 시장에는 미사일, 방공 시스템 및 무기 시스템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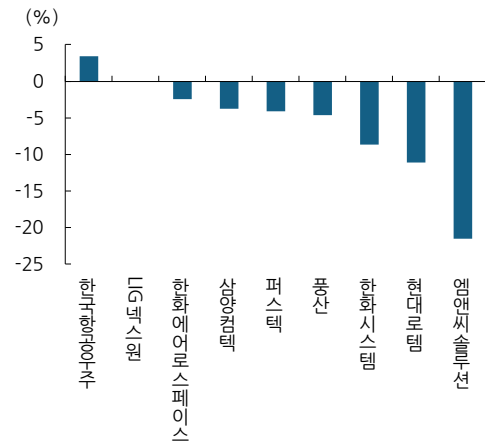
URL: <https://bit.ly/4xbFmjF>

그림6 방산 5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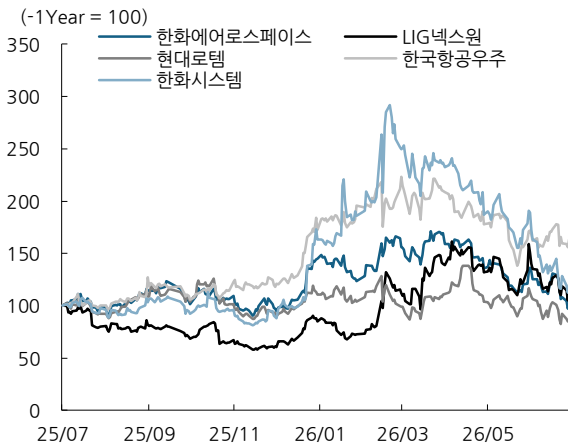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방산 주요 기업 1W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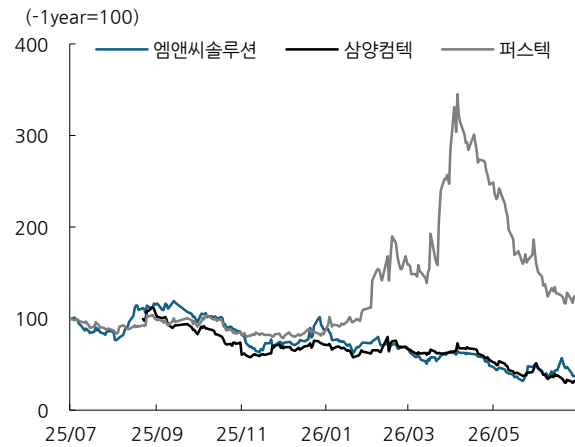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방산 5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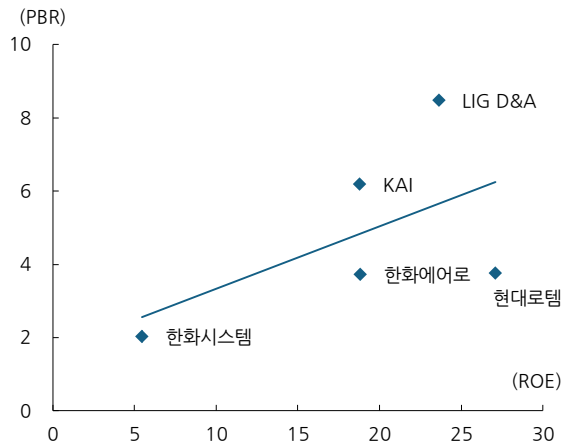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방산 주요 부품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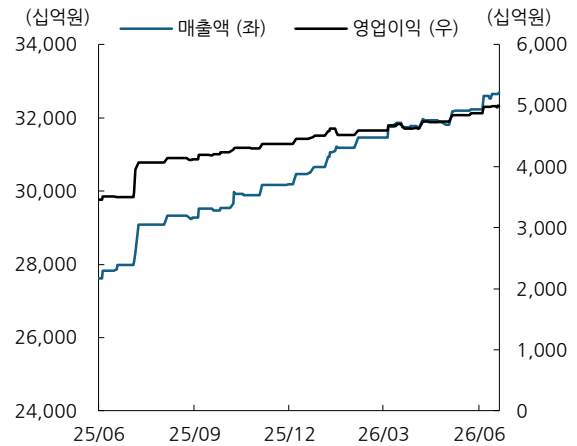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방산 5사 12M Fwd PBR-ROE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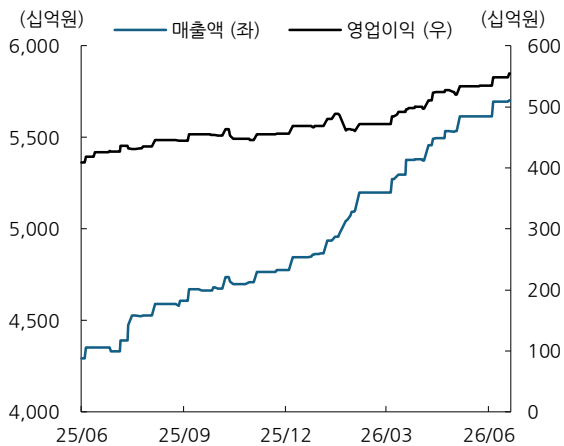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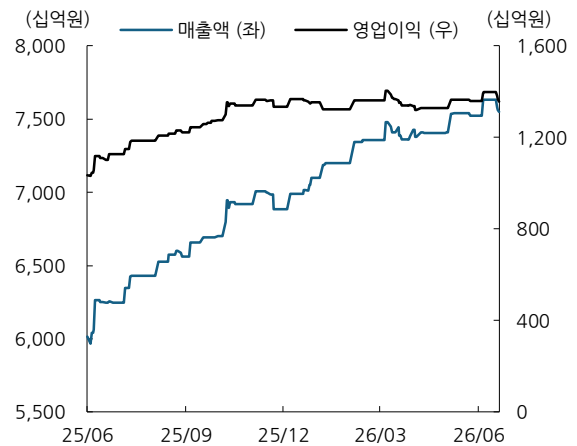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LIG D&A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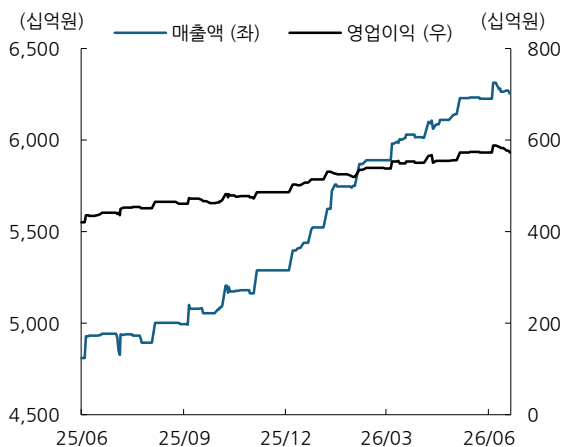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현대로템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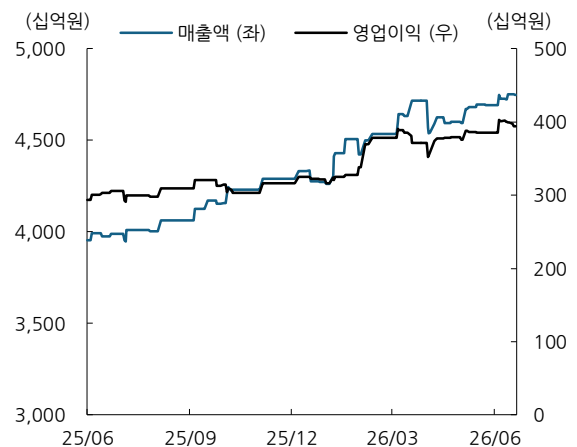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한국항공우주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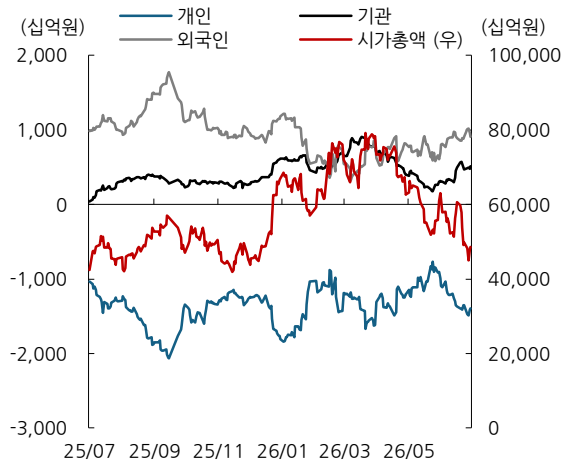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한화시스템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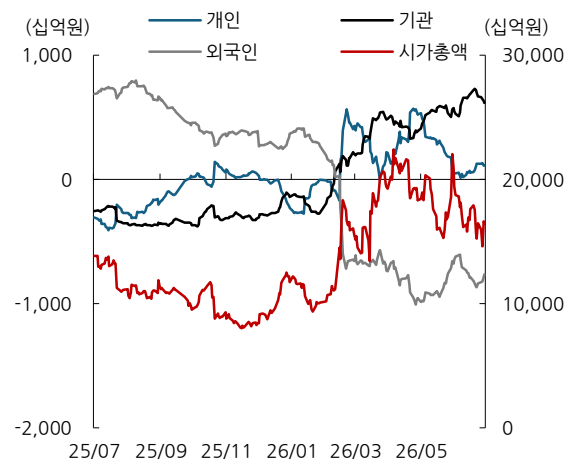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한화에어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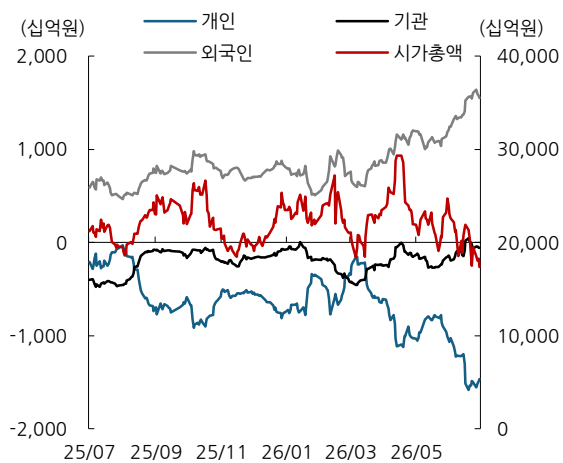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LG D&A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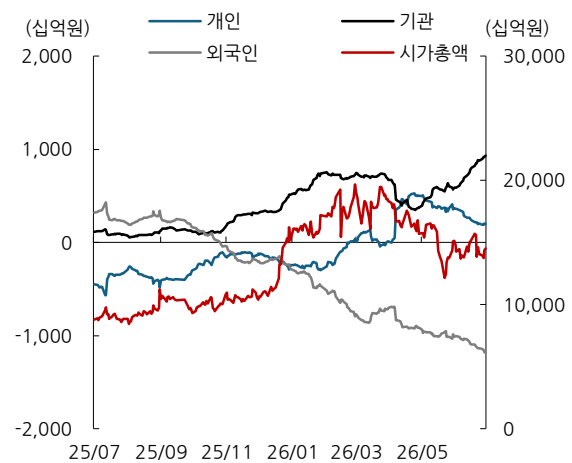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현대로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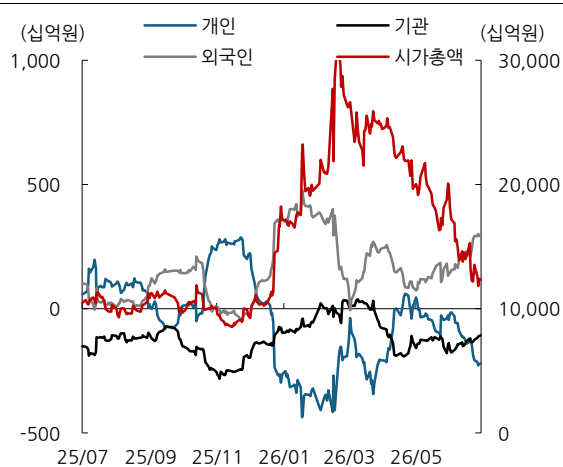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한국항공우주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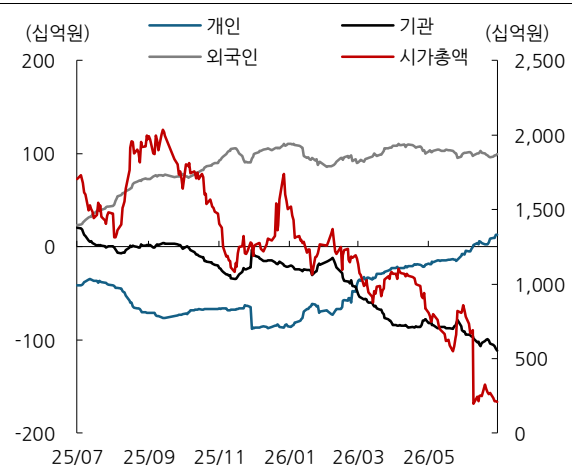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한화시스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엠앤씨솔루션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